제 114 호

미주판

온누리신문

보스턴

선교보고: 캐나다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선교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살아내는 것"

보스턴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된 L.E.A.F. (Living Eagerly And Faithfully) 캐나다 선교팀이 주님의 은혜 안에 6박 7일(8/17~8/24)에 걸쳐서 Grassy Narrows Native American Reserve 로의 선교를 마쳤습니다.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선교팀이지만 한 사람도 크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왔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Grassy Narrows가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래서 어쩌면 더 어려운 선교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술, 마약, 성적 타락함,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무관심으로 가득한 그 캐나다 Grassy Narrows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은식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만나 뵙고 서로의 삶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새벽기도와 목회, 그리고 음악사역으로 그 곳에 계시는 원주민분들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삶과 두 분의 세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다시금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Grassy Narrows 에서 감당할 여러가지 사역들과 특송들을 약 3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준비했습니다. 여섯 가지 수업들 (비누만들기, 치약만들기, 형광공 접기, 고무팔찌 만들기, 등등), 운동회, 워십댄스 두 개, 플룻 특송 두개, 찬양 특송, 합창, 스킷, 그리고 그 외 여러가지 보충 수업들을 준비하며 제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의 상태였습니다. 준비기간 동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조금은 분주한 마음으로 선교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 기간 동안 팀 멤버들이 각자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위로를 주셨고, 그로 인해 선교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원망스러웠던 순간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화가 났던 순간들, 그리고 그들에게 아쉬웠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지만 마지막에 내 입술을 통해 팀 멤버들에게 "I wouldn't have gone with anyone else" 라고 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에게는 두 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주어진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교사님을 돕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팀 내에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두 가지를 감당하며 보내신 선교지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갈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교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감정적으로 은혜충만하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선교 가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선교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명 한명이 너무나도 다른 캐나다 선교팀 14명을 모으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결국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신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캐나다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 뿐만 아니라 팀원들 각자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병천 형제

괌

괌 온누리, 전교인 야외예배 드려

식사와 교제로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

지난 9월 29일 괌온누리교회는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의 예배와 점심식사는 괌 레오팔레스 리조트 대연회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식사 이후에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영, 볼링, 골프 등으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었다.

특별히 이번 전교인 야외예배에는 부천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함께 참여하였다. 부천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은 "I love you, Lord" 찬양으로 워십 댄스를 준비했으며, 또한 태권도와 부채춤, 트롯트 찬양을 곁들인 신나는 공연으로 괌온누리교회의 성도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다.

김형철 담임목사는 이사야 43장 18-1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김형철 담임목사는 "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에 불가능할 것 같은 많은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며 "특별히 준비중인 차세대 비전센터(아크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괌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예배 이후 순별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강네이든 순장의 인도 하에 넌센스 퀴즈 등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한데 웃고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다. 괌 온누리교회의 한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한데 모여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명선 통신원

뉴저지

아름다운 만남, 사랑의 행보

뉴저지 온누리교회(담임 Marc Choi 목사)는 9월 22일 주일에 도미니카 공화국 아동후원 결연의 날을 개최하였다.

도미니카 야과떼 지역개발사업장의 105명의 아동 후원을 위하여 각 예배마다 비전을 나누고 후원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1부와 2부 예배를 통하여 이미 105명의 결연이 완료가 되어 훈훈함을 더하였다. 결연을 원하는 남은 후원자들에게는 다른 지역인 과테말라 22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결연이 되기도 하였다.

결연을 통해 전달되는 매달의 후원금은 아이들에게 공부 할 수 있는 학비 및 학용품과 영양식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모토 아래 야과떼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식수 및 화장실, 보건 의료 사역에 사용이 된다.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도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을 변화 시키는 비용으로 사용 되는 것이다.

굿네이버스 미주본부 김재학 본부장은 "뉴저지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복음을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단기선교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였다.

뉴저지 온누리교회의 사랑의 행보를 통하여 한 아이가 살아나고, 한 나라가 회복 되길 소망해 본다.

장동원 목사

밴쿠버

시월의 어느 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은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몇 년 째 한달에 한번씩 꼭꼭 만났던 한 할머니께서, 어느 날 우리 팀이 방문했을 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아니, 무슨 말씀이시지?.. 지난 달에 뵈었잖아. 근데..왜...'

순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네, 죄송해요. 다음부터 절대로 빠지지 않고 꼭 올께요. 약속해요."라고 말하며 인사를 드린 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래전 치매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과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어느 가을날 엉뚱한 핀찬을 들은 찬양 선교팀 배집사님의 고백이다.

함께 울고 웃고 손뼉치고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과 사랑을 배우고, 기쁨을 나눈다.

밴쿠버 온누리 '주향기 찬양선교팀'은 오래전부터 매달 세번째 주 목요일마다 밴쿠버 써리 지역에 위치한 아메니다 요양원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예배하고,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들을 율동과 함께 배우고, 부르는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송영동 담당 목사님과 김진우 부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르신들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

팀원들 모두가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이 시간 만큼은 모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춤추고 노래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다.

한국을 떠나 이곳 캐나다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제일 그립고 안타까운 것이 고국에 계신 부모와 형제들 생각이다. 이곳에서 이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떠나온 조국을 그리워하고, 어르신들은 그 옛날 불렀던 찬양들을 부르시며 옛날을 기억해 보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추억을 붙드는 날이다.

이럴 때 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촉촉한 사랑의 줄이 우리 전체를 끈끈하게 묶어 주심을 느낀다. 말씀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진다.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닥아온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온누리에 퍼지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앵커리지

시니어 VBS "앙코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지난 10월 11일-12일 이틀간 시니어를 위한 VBS "앙코르"를 열었다.

이번 vbs는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강의나 세미나가 아닌 즐겁게 찬양하고,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다.

강사로는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김태환 목사님이 섬겨주셨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구원의 대한 확신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었다.

말씀을 들으신 어르신들은 막연히 알고 있었던 구원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셨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 야 할지 막연했지만,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쁘게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웃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 가운데 처음 교회에 오신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도 시니어를 위한 VBS 을 하는 교회는 여기가 처음이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 축복된 삶을 살고, 구원받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시니어 VBS도 차세대 VBS 처럼 매년 진행되어 복음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시니어 세대까지 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노경호 목사

산타모니카

산타모니카 온누리 UCLA 신학기 Holystar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정장철 목사)는 UCLA 신학기를 맞이해서 Holystar한 주간동안 가졌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상반기에는 Santamonica College에서 하반기에는 UCLA에서 신학기 Holystar를 각각 진행해오고 있다.

신학기를 맞이한 청년들에게는 한 학기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하고 신앙의 방향을 잡아가는 시간들이고, 성도님들에게는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의미의 시간들이다. 이번 UCLA 신학기 Holystar에 참여한 몇몇 청년들의 소감을 들어 보겠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한 주 동안 하루를 시작 할 수있어서 은혜로웠어요. 식사 교제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알게 되고 공동체와 UCLA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홀리스타를 통해 아침 큐티와 공동체에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청년부, 박하진 자매)

"홀리스타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기회가 된거 같습니다. 학교가 시작되고 바쁜 스케줄에 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다반사 였는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니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 할수 있어 좋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가기전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진 못하지만 수업후 첫 자유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써 하루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임혜지 자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신학기 Holystar 이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Holynight 으로 주중 모임을 가지고 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산타모니카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본다.

진영국 목사

얼바인

얼바인 온누리교회 샬롬 아카데미 가을 리트릿

지난, 10월 1일(화), 얼바인 온누리교회(담당 박신웅 목사) 샬롬아카데미(시니어 공동체)에서는 유카이파(Yucaipa)에 있는 오크 글렌(Oak Glen)으로 '가을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평균 연령 76세가 조금 넘으시는 약 일흔 명의 어르신들이 이른 아침에 교회에서 모여 간단한 찬양 후, 신중수 담당장로의 기도로 가을 리트릿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간식과 음료를 하나씩 들고, 가을 리트릿 장소로 출발하는 대형버스와 미니벤에 몸을 싣었습니다.

약 1시간 10분 정도 이동하여 로스 리오스 란초(Los Rios Rancho)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뒤에는 험준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싱싱한 푸른 풀밭 위에 이미 준비된 야외 테이블에 삼삼오오 앉아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깊은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영대 장로의 기도 후, 이형근 목사는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자연 가운데 발견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이어서 오크 글렌 자연 경관 보호 공원(Oak Glen Preserve)으로 이동하여 사람들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야생 자연 공원에서 함께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단한 교제 후, 준비된 식사 장소에서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 지역 명물로 알려진 애플 파이와 커피를 나누며 풍성한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조단 전도사의 진행으로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마다 멈추지 않는 커다란 웃음꽃을 함께 피웠습니다. 레크레이션을 마친 뒤, 사과 과수원인 릴리스 팜(Riley's Farm)으로 이동하여 과수원을 거닐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사과 따는 체험도 하며 준비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날, 가을 리트릿에 참석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매우 만족을 표현했었는데, 한 회원은 내년에는 당연히 꼭 와야 하고, 가능하면 올해도 3개월 남았으니 한 번 더 오자고 말씀하시며 기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얼바인온누리교회 샬롬아카데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 주셨고,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묻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진아 객원기자